

『民族的「리얼리즘」건축』

金江鳥
(金星綜合設計公社)

I

1. 한국 건축의 주체적 방향을 定立하기 위해 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理論的反省이 요구된다.

韓國建築은 1880年代 이후 급변하는 世界史의 흐름 속에서, 스스로의 方向을 잃고 해매고 있었다. 解放後에도 여전히 韓國建築은 사회의 内在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원조 文化的「러쉬」속에서 移植文化의 植民建築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韓國建築의 主体的 방향을 잡아야겠다는 생각은 더욱 高潮되어 왔다. 이러한 課題를 해결하는 실마리를 갖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理論的反省이 요구된다.

여기에, 한국건축을 正座시키기 위한 보편적이고 객관적이며 現實을 바탕으로 하는 理論으로, 「民族的 리얼리즘 建築」이 제기되어야 한다.

2. 이것은 人間을 사랑하는 「휴매니즘」에 기초한다.

生存競爭, 심지어는 生存鬭爭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는 이 말을 단연 拒絕한다.

사람은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 난 것은 아니다. 사람은 보다 사람다운 행복한 生活을 영위하기 위해서 이 땅에 生存해 가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도와 가며 함께 살 수 있다. 이 걸만이 함께 共存하는 것이다.

건축예술은, 「인간을 위한 芸術」로 파악함으로써 「美를 위한 美」라는 허위의 겹침을 벗겨야 되겠다. 「인간을 위한 건축」 좀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민족을 위한 건축」은 민족의 당면 과제가 무엇인가를 파악함으로써 더욱 명료해 진다. 당면한 민족의 과제는 민족의 자립과 번영이며, 이것을 민족주의에 의해서 만이 해결이 가능하다. 따라서 「민족적 리얼리즘 건축」이 提唱되고 있다.

우리는 人間을 위한 건축, 人間을 위한 都市를 造營하여, 現代社會가 낳은 각종 公害로부터 人間을 해방하자.

3. 民衆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과 함께 思考하는 建築을 창조하자.

現代의 「메카니즘」에 피해를 받고 있는 대부분의 인간인 民衆을 해방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西歐의 理論을 맹목적으로 도입하면, 곧 실패함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失敗는 그 理論이 우리의 社會에 바탕을 주지 않은 때문이고, 建築家가 민중과 함께 호흡하지 않은 때문이다.

그들과 함께 思考하는 理論만이 民衆을現代의 「메카니즘」으로부터 解放하는 지름길이며, 이 걸만이 새로운 造形과 그 理論을 창조한다.

우리는 민중과 함께 思考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그들과 함께 利害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들 속에서 그들과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그들과 함께 生活하여야 한다.

4. 伝統을 繼承 發展시키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하는 첨경이다.

傳統的 建築思想을 이해하는 것은, 기형적 발전을 거듭한 民衆의 建築思想을 이해하는 가장 빠른 것이다. 民衆의 建築思想으로부터 출발하는 새로운 건축의 창조는 건축에 발생하는 새로운 요구, 그것을 만족시키는 生產技術의 進步에 의해서 비로소 가능해진다.

이러한 使用上의 요구나, 生產上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 해결 방법을 풍부하게 하는 것은, 당연히 과거의 경험을 利用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서 伝統의 繼承의 發展이 요구되고 있다.

이것은 伝統的 形態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내용에 의해서만 가능해진다.

伝統 建築의 美 意識, 建築思想 및 時代의 社會美를 어떻게 芸術美로 形象化시켰는가 하는 과거의 경험을 살리는 것만이 現代 建築의 課題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고, 이것으로 伝統의 繙承은 이룩 되는 것이다:

5. 農村 建築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일차적 과제이고, 따라서 이를 民族의 材料와 民族의 生産技術로서 해결하여야 한다.

民族의 보편적 과제인近代化를 이룩하기 위해 서는 農村의 근대화와 이에 따른 民族經濟의 성장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은 自明하다.

때문에 農村 住宅 및 취락 등, 農村의 모든 農村建築에 대한 諸矛盾을 첨예화시켜 해결하며, 당분간 이 문제에 대해서 노력은 경주한다.

民族經濟의 성장을 위해서, 民族의 技術에 의한 民族이 소유한 素材에 의해 만들어 진 民族의 材料를 사용하며, 이것을 民族의 生産技術에 의하여 民族의 生産技術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建築을 창조한다.

6. 近代化는 市民의 解放이라는 면에서 포착하여 生產力 拡大에 모든 노력을 집중한다.

祖國近代化의 물결은 우리 가정에 많은 것을 가져다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近代化의 혜택을 받고 있는 가정은 소수에 불과하고 아직도 대부분의 민중은近代化와 먼 거리에 있다.

때문에 우리의近代建築은 民衆建築과 遊離하여 관료주의적 성격을 떠우게 되었다. 이 성격은 民衆建築으로 하여금近代建築을 敬遠케 하는 이유가 되게 하였고,近代建築家는 民衆建築을 도외시 하므로서, 韓國建築은 外來에서 도입된 建築 양식과 우리 民族이 소유하던 建築 양식과의 二大潮流를 止揚하지 못하고, 다른 형태로 지속하게 하였다.

이러한 二大潮流를 止揚하는 것은, 建築에 있어서의 市民解放을 뜻하며, 이것은 民衆建築을近代化시키는 데서 이룩될 수 있다.

이러한 民衆建築의近代化는近代的 生産方法의 移植에서 이룩되는 것이 아니고, 建築 生產力의 拡大에서 많이 얻어지는 것이다.

여기에는 建築 生產力의 拡大방법을 생각하여 보자.

먼저, 건축을 최종 소비재인 生產物로 인식하여,

첫째, 기술적 경제적 건축을 하자.

건축은 현실적으로 최소한의 경제적 건축을 하여야 한다. 또, 기술적 건축이 오히려 경제적 건축임을 자각하자.

둘째, 社会的 生產力에 相應하는 機械 機具를 사용하자.

民族의 生產技術에 맞는 機械와 機具를 사용하여, 民衆建築의 전반적인 생산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건축을 規格화하자.

建築物을 規格화하여 工事費까지도 規格화시키며, 이에 따른 建築物의 단가를 절감시킨다.

넷째, 建築 生產過程을 分業화시킨다.

보다 치밀한 계획에 의한 分業은 生產擴大에 커다란 역할을 한다.

다음, 건축을 최초의 生產材로 인식하여,

첫째, 보다 인간적인 生活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을 창조하자.

절대적인 공간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는 韓國의 現代建築에 맞추어, 공간의 장식보다는 새로운 공간의 창조에 역점을 두자.

둘째, 勞動을 절감시킬 수 있는 平面과 動線을 창조하자.

7. 使用価値을 창조하는 광의의 機能主義 건축을 만들자.

「디자인」의 본래 목적은 使用価値을 높이기 위함이다. 이러한 목적과 相異하게, 交換經濟時代의 건축 「디자인」은 보다 交換価値을 높이기 위해서 작용하고 있다.

또한, 交換価値은 建築을 個個로 파악케 하여, 건축의 社会的 機能을 하락시키며, 建築群으로서 건축의 使用価値을 추락시키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諸矛盾을 인식하여 建築의 使用価値을 높이고, 社会的 機能을 중요시 할 수 있는方向을 모색하여야 한다.

8. 건축을 成長으로 인식하며, 성장의 단계에 따른 각각 다른 조형 形態를 갖는다.

건축 生産技術의 진보와 社会的 生産力이 향상됨에 따라 건축은 급격하게 변화하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건축물의 수명보다 짧게 되고, 따라서 成長變化할 수 있는 建築을 창조하여야 한다.

건축은 발전하는 것이므로, 민족적「리얼리즘」건축은 현실에 기반을 두고 未來로 成長할 수 있는 건축 理論이다. 현실에서 미래로 놓여진 다리 위에 우리를 위치하는 것이 우리의 업무이다. 따라서 相異한 발전단계는 그 현실적 기반이 다름으로 말미암아, 각각 다른 造形 形態를 낳아야 만 한다.

II.

이러한 建築思想 위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건축을 추구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당분간 벽돌에 의한 組積造 건축을 추구한다.

組積造 건축을 추구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低層 건물일 때 가장 經濟的 構造物이다.

② 民族의 社会的 生産力에 相應하는 生産技術이므로, 파급효과를 가져와 민족의 社会的 生産力を 가장 빨리 拡大할 수 있다.

③ 民族의 材料로서, 벽돌은 우리나라의 어느곳에서나 구워낼 수 있다.

④ 거푸집이 필요하지 않고 공사 기일이 빠르다.

⑤ 規格化된 벽돌은 모든것을 규격화시키도록 유도하여, 현장 시공의 불안정성을 감소시킨다.

⑥ 아무 곳에서나 손쉽게 구워낼 수 있으므로, 중소 기업을 육성할 수 있고, 산업간 지역 격차를 줄일 수 있으며 材料의 운송비를 절감케 한다.

둘째, 材料의 성질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民族의 새로운 재료를 개발하고, 이것의 성질을 그대로 건축에 표현하므로서 民族의 生産技術을 향상시킨다.

셋째, 建物의 高層化를 止場하고, 建築의 高層化를 폐한다.

建物의 高層化는 經濟性이 희박할 뿐만 아니라,

都市의 一 地点 集重을 초래하여, 建築의 社会的機能을 저하시킨다.

建築의 전체적 高層化를 폐하기 위해서, 그 평균높이를 대략 農村建築은 3層, 都市建築은 5層 정도로 짓되, 造形上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上下로 약간의 流動性을 둔다.

넷째, 近代化가 하루 빨리 全 民중에게 파급 되기 위하여, 建築의 集團化를 폐한다.

建物의 大型化는 生產單體를 절감시키며, 近代化된 「써비스」시설을 共有化함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全 民衆의 家事勞動으로부터의 解放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民族的「리얼리즘」건축은 냉엄한 느낌을 주는 무성격적인 近代建築을 배격하고, 순수에 빠진 개성적인 現代建築도 배격한다. 민족적「리얼리즘」건축은 우리 민족에게 친근한 느낌을 주면서, 개인의 갈등이 아니고 民族의 의지와 갈등을 표현하며, 우리 민족이 당면한 현실적인 과제를 해결하는 建築이다. 이것은 반드시 전통의 繼承·發展에 의해서만이 가능한 것이고, 때문에 우리 민족의 民族像으로 우리 민족의 마음속에 자리 잡아 넘쳐 흐를 것이다.

〈끝〉